

현대미술 중심지 뉴욕서 K-수묵 다양성·가능성 알려

전라남도과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이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전라국제 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뉴욕 뉴 잉크(New York, New Ink!)'를 공동 개최해 케이(K)-수묵의 다양성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전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 21일간 열려 전라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전통 수묵의 미학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케이-수묵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해외 무대에 소개했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과 스테파니 김(김승민)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으며, 이이남·한영섭·정광희·강운·설박(Sul Park)·구승운·케이윤(Kay Yoon)·김상연 등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사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수묵 예술이 지닌 전통성과 동시대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시 기간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악조건에서도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며, 한국 현대 수묵에 대한 현지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

전남도·뉴욕한국문화원 공동 개최 '뉴욕 뉴 잉크' 특별전 성료
미 동부 폭설·한파 뚫고 발길... 인류 보편문명 확장성 보여줘



다. 이는 수묵이 전통 회화 장르를 넘어 동시대 미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개막식에는 론 김(Ron Kim)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론스타인(Edward Braunstein) 뉴욕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현지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했으며, 한국 문화에

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와 문화적 파급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뉴욕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수묵이 과거의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회화의 미학과 방법론을 인류 보편문명의 예술 언어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뉴욕 수묵 특별전은 한국 수묵미술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해외 전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며 "전남도는 케이-수묵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특별전과 다양한 국제 전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막 올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서 무대 선배
국악 실내악 '눈사람'·'겨울에게'·'춤'·'월하정인' 등 다채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이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7일 '당신의 안녕을 그리다'를 주제로 새해 첫 시즌의 막을 올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완성도 높은 전통예술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시즌은 단발성 특집공연이 아닌, 어느 회차도 놓칠 수 없는 '불만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전통 소리와 춤, 연주, 연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매우 다른 장르, 다른 감성의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2월 공연에는 겨울의 끝자락이란 계절의 정서를 담아, 몸을 풀 듯 천천히 감정을 깨우는 무대로 시작한다. 국악 실내악 '눈사람'과 '겨울에게'를 비롯해 '춤' '월하정인', 가야금 병창 '고고천변',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 등 마음의 온기를 회복하는 감성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3월에는 봄의 기운에 맞춰 보다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태평무'와 가무악 '타무희', 모듬북 합주곡 'SAY 타' 등 생동감 넘치는 무대와 3인 3색 판소리 '알맹이사 출두 대목'과 이만가락 판소리 '심봉사 눈뜨는 대목', 단막 창극 '기생점고 대목' 등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으로 공연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을 예정이다.

총연출을 맡은 조용안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전남도립국악단의 비전 '일성일흔(一聲一禪)'은 소리 하나에 혼을 담고, 한마음 한 뜻으로 예술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명"이라며 "그린국악을 통해 전통예술의 가치를 오늘의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도록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1만 원이며, 예매 문의는 전남도립국악단(061-981-6923)으로 하면 된다. /전혜경 기자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2026년 도슨트 클래스' 수강생 모집

2월 5일부터 13일까지 모집... 지역 출토 유물, 지역 주민이 해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전시 해설 활동에 관심 있는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 도슨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슨트 클래스는 운주사 출토 유물 전시와 연계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실습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총 10회차로 운영된다.

이론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매일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시 구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유물과 전시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실습 과정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운주사 출토 유물 전시의 실제 도슨트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실습은 매일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관람객 응대와 전시 해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 제한 없이 운영되고 실습 참여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

으로 인정된다. 수강생 모집은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성인·청소년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수강료는 1인당 10,000원이며, 접수는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도슨트 클래스는 지역 주민이 전시 해설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람객과 전시를 잇는 소통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의 전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운주사 출토 유물 전시를 매개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전달함으로써,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대상	명수	기간	회수	시간
이론 교육	성인·청소년	10명	2026. 3. ~ 6.	10회	매주 2·4주 토요일 14:00~15:00
실습 과정	성인·청소년	10명	2026. 8. ~ 12.	10회	매주 2·4주 토요일 14:00~15:00

수강료: 1인당 10,000원
 접수처: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2층 세미나실 (061-379-5893)
 문의처: 문화유산팀 (061-379-5893)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은 이번 도슨트 클래스 운영을 계기로 주민 참여형 문화유산 교육을 확대하고, 전시 현장에서의 관람 경험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 061-379-5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생활밀착형 독서 입문 프로그램 '동구 인생문장 산책' 연중 운영

비독서층 심리장벽 낮추고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

광주 동구는 주민과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확산과 비독서층의 독서 입문을 지원하기 위해 '책 읽는 동구' 사업 일환인 '동구 인생문장 산책: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문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책과 거리가 있었던 주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삶에 힘이 되었던 한 문장'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기획된 생활밀착형 독서 입문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문장'은 시 한편, 책 속 한 문장 등 개인의 삶에 의미를 남긴 문장을 온라인(QR코드)과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모집하고, 이 가운데 매주 선정된 문장을 구청 내·외부 매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문장은

구청 내 미디어보드,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을 통해 공유되며,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독서 경험이 적은 주민들이 '문장'을 매개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후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단계형 독서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독서층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책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문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된 문장은 추후 콘텐츠북으로 제작·활용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크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